

# Bazaar

Harper's

www.imagazinekorea.com  
값 6,900원

## 2015 S/S Couture Report

고현정이 들려주는 봄의 왈츠  
무대 뒤에서 만난 엄지원  
백지연의 찬란한 오늘  
한대수의 에너르기 과

## SPRING MAKE UP ISSUE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립스틱까지

## EAT BUGS

루벤 톨레도의 다이내믹 라이프  
LDP 무용단의 에너지  
킨포크의 고향 포틀랜드  
드론 침공, 뜰까 말까

## PLUS;

틸다스윈턴, 린다 매카트니  
캐롤리나 헤레라, 빌비올라  
알마 조도르프스키  
플라토마스, 티에리 라스리  
비비안 마이어, 김성중

# Key Pieces for SPRING



별책부록  
아티스트들의 예술적 행보를 담은  
세 번째 아트 에디션  
HARPER'S BAZAAR

# ART

# BAZAAR Harper's

TALK

BILL VIOLA



## 드림의 묘미

현실 논리와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재생되는 빌 비올라의 영상을 싫증 내지 않고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 그가 만드는 간결하고 섬세한 드림의 철학은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된다.



빌 비올라와 그의 아내이자  
작업 동료인 키라 페로프

“내 작업은 감상을 넘어 경험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치고 있어요. 사진으로 남겨진 기록은  
늘 함께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지 않아요.”

세상의 절반이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물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쩌다 물에 빠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꽤 될 거란 얘기다. 개중에는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될 뻔했던 이들도 있겠다. (나도 그렇다.) 이 위기 국면에서 잘 빠져나왔다 해도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남는다. 대개는 물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늙어간다. (나도 마찬가지다.) 소격동의 국제갤러리에서 만난 빌 비올라의 사연은 좀 달랐다. 어릴 적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호수에 빠진 그는 검은 심연 속에서 색다른 경험을 했다. 바닥에서 눈을 뜨고 위를 쳐다보니 (고작 여섯 살이었지만) 생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인터뷰 직전 두통을 앓던 그가 활기를 띠고 말했다. “당신도 봤었나요? 그건 파라다이스 같았어요. 그땐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고 금방 잊혀졌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가장 특별했던 순간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잘 알려진 것처럼 빌 비올라의 영상작품에는 물의 이미지가 자주 쓰인다. 인간의 형체가 물의 장막을 통과하거나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고, 한 방울씩 떨어지던 빗방울이 폭포수로 바뀌어 사람의 흔적을 지워버린다. “그 경험이 나의 작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이 말은 왜 그가 오랫동안 물에 집착하며 배우들에게 물세례를 퍼붓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필연적이었다. 똑같이 물에 빠졌지만 빌 비올라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비디오아트의 거장이 됐고, 나는 그런 그를 인터뷰하고 있었다. 국제갤러리의 개인전에서 관람객을 맞는 7점의 영상작품 중에도 같은 맥락의 작업이 있다. 높이가 5m에 달하는 ‘도치된 탄생’(2014)을 보면 한 남자의 몸을 뒤덮은 검은 액체가 위로 올라가더니 붉은색, 흰색, 투명한 물줄기가 차례로 솟구친다. 인간이 격렬한 변화를 겪으면서 이르게 되는 깨달음을 담은 영상물이다. 지난해 영국 런던 세인트폴 성당의 의뢰로 제작한 순교자 시리즈 중 하나인 ‘물의 순교자’(2014)는 또 어떤가. 밧줄에 묶여 거꾸로 들어올려진 남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듯 거대한 물줄기가 내리친다. 현실의 수압과도 같은 물의 세기가 점점 강해질수록 이를 감내하는 남자의 영혼은 더욱 강인하게 느껴진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빌 비올라가 본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의 일부가 돼 남은 생을 이끌고 나아가는 걸까. “영혼의 공간을 통해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역경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삶의 이면에 더 심오한 무언가가 있기에 고통도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구원도 필요해요.” 이 같은 빌 비올라의 명상적이고 성찰적인 말들이 아니더라도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그건 무의식의 심연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붓을 쥐었다면 관념적인 이상향을 화폭에 형상화했는지 모르지만 카메라를 든 그는 이를 직접적으로 시각화하지 않는다. 그 대신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어릴 적 느꼈던 영적 충격과 깨달음을 교감하도록 만든다. 이는 삶의 평범한 진리, 열정, 꿈처럼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는 가치 같은 것이 아니다. 빌 비올라는 탄생과 소멸, 인간 구원, 영적 사유 등의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주제를 영상 이미지로 시각화한다. 그 점이 바로 그가 ‘현대미술의 영상사인’이라 불리는 이유다. 단출하면서도 ‘슬로 모션’ 기법을 이용해 느리게 흘러가는 그의 영상작품은 아

름답다기보다 초현실의 맛을 자아낸다. 항상 변함없는 구도의 화면을 싫증 내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면 강렬한 감흥이 일거나 묵직한 메시지에 공감하게 된다. 또 무의식적으로 단아놓은 고통의 문이 다시 열리는 듯한 기분에 젖기도 한다. (빌 비올라는 가끔 자신의 전시에 들러 관람객을 관찰하는데 간혹 “이게 대체 무슨 의미야?”라는 반응도 있다고 했다.) “서사 없이 이미지들로만 구성된 그의 작업을 처음 봤을 때 꿈속 어딘가로 이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는 하나같이 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잠에서 깨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꿈에 영향을 받아요. 그의 작업도 비슷해요.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무언가를 일깨워줘요.” 그의 아내이자 동료이기도 한 키라 페로프의 설명이다.

때로는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것이 가장 종교적일 수 있다. 빌 비올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을 성찰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어떻게 하면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깨끗하고 숭고하게 살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아마도 그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어 예술이라는 걸 시작했을 것이다. 순교자 시리즈에 담긴 의미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은 ‘증인’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예요.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보는 증인이 되지만 정작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순교자들을 통해 인간의 의지, 인내심, 희생을 말하고 싶었어요. 결국 신념과 가치를 위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존재예요.”

외양에서부터 현자와 같은 분위기가 감도는 그의 말들을 옮겨 적었지만 빌 비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무거운 사람은 아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높은 관심 탓에 기자간담회에서 형이상학적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작품만으로 예술가를 온전히 파악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아무리 빌 비올라라도 온종일 고통, 죽음, 구원의 의미에 대해 고뇌만 하고 있진 않다. “많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껴요. 특히 작품이 완성됐을 땐 천국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작업을 하는 동안은 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촬영에 쓸 액체를 만들고 테스트하는 것을 반복해야 하고 최적의 배우를 구하지 못해 촬영 직전까지 캐스팅을 고민해야 할 때도 있어요.” <바자>의 사진 촬영을 하면서 근엄했던 표정을 풀고 미소 짓는 어른의 얼굴을 보여준 빌 비올라는 비디오아트에 입문했던 시절을 회상할 땐 한층 더 유쾌했다. “처음에 썼던 레코더는 굉장히 거대했어요. 무게가 9kg이나 돼 들어서 함께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버튼은 고작 하나일 정도로 기능은 단출했죠. 첫 작업으로 나무를 찍었는데 버튼을 누를 때 마다 레코더의 작동이 중지됐어요. 결국 버튼만 누르다 시간이 다 갔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촬영 시작과 종료 버튼이 그것 하나였던 거였어요. (웃음) 우스운 에피소드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해요. 지금은 주류로 자리매김했지만 1960~70년대에 비디오아트는 생소한 장르였어요. 하지만 그 시절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정도로 젊었어요.”

빌 비올라의 반전 면모는 또 있다. 최첨단 카메라와 미디어 장비로 작업하고 있는 그가 디지털 기술이라면 질색한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에 와서 인터넷 속도에 놀라움을 넘어 아찔함을 느꼈다고 했다. “우리는 정보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20년 전에도 넘쳐나는 정보를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Night Vigil(밤의 기도)', 2005/ 2009



The Encounter(조우), 2012



'Water Martyr(물의 순교자)', 2014

은 거의 '쓰나미' 수준이에요. 누구나 카메라를 갖고 다니며 수시로 찍어요. 당신의 휴대폰에는 몇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나요?(그의 스튜디오에는 6만여 장의 사진이 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 셈이에요? 만약 통제로 삭제된다면 어떡할 건가요? 이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해요." 이어 빌 비올라는 자신의 영상작품을 대하는 관람객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눈에 선했다. 전시장에 온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꺼내 그의 영상작품을 손 안의 영상으로 복제한다.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그들의 텅 빈 눈동자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 "최근 몇몇 전시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걸 절제하지 못하는 듯해요. 이게 하나의 문화현상이라면 내가 너무 늙어버린 거겠죠. (웃음)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봐요. 내 작업은 감상을 넘어 경험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치고 있어요. 사진으로 남겨진 기록은 늘 함께할 수 있지만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지 않아요."

격양된 불만이라기보다 아쉬움 섞인 진단에 가까운 빌 비올라의 이 말은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그의 작품을 손쉽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갤러리에 직접 와서 감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한다. 빌 비올라의 작업은 영상이 전부다 아니다. 전시 공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현실 논리와 다른 속도로 재생되는 선연한 영상과 도취된 분위기가 눈 속으로 들어오면 내면을 채우고 비로소 정신적 구체는 풍성해진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규모의 감각과 더불어 작품의 사운드가 몸을 휘감는 것을 느끼고 마음을 여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예술을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빌 비올라가 적시한 삶의 의미는 출렁이고 쏟아지는 물 외에도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구현된다. '불의 여인'(2005)은 불의 장벽 앞에 선 여인을 통해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세계가 합일을 이루는 순간을 보여주며, 이번 개인전에 소개된 '조우'(2012), '가녀린 실'(2012), '내적 통로'(2013)는 어디론가 걸어가는 행위를 통해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를 위해 배우들은 물벼락에 맞거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꾸로 매달리거나 황량한 풍경의 사막을 가로지른다. "할리우드 배우들을 캐스팅하진 않아요. (웃음) 주로 연극배우들과 작업을 하는데 어떤 내용의 촬영인지 미리 말해주는 일은 없어요. 대신 마주앉아서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연결

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촬영을 시작해서도 디렉션을 많이 주지 않아요. 배우가 긴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는 정도예요.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감정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에요."

빌 비올라가 마음을 건드리는 대상이 어디 그들뿐이겠나. 그가 만든 영상은 나날이 흐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키우고 그 안을 살피게 한다. 그런 면에서 그의 간결하고 섬세하게 짜인 느낌의 철학은 세상을 더 낮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된다. 자신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빨라지는 요즘 같은 날, 빌 비올라의 개인전에 들러보길 바란다. 전시는 5월 3일까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나진 않더라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할 것이다. **B** 에디터/김영재